

수능 D-30일... 복습으로 실전수능 대비해야

도교육청, 수험생들에 마무리 학습전략 조언 희망 대학에 따라 선택적 집중 학습 필요

오는 11월 14일 치러지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전북도교육청은 수험생들이 지금까지 학습했던 문제집과 정리된 내용을 중심으로 복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15일 도교육청은 “남은 한달 동안은 기존에 풀어봤던 모의평가를 통한 핵심개념과 오답정리를 중심으로 한 학

습이 필요한 시기”라며 “복습을 통한 마무리로 수능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학습계획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이 정리한 ‘수능 한달 앞 학습전략’에 따르면 이 시기는 또 희망하는 대학에 따라 선택적 집중 학습이 필요한 때이기도 하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지원대학 별로

반영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반영비율이 높은 교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아울러 매일 매일을 수능일처럼 학습계획을 세워 ‘실전 수능’을 위한 연습적 실전을 병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실전 연습은 시간 안에 문제풀기와 답안 작성까지 마무리하는 연습, 소문과 같은 예상치 못한 시험장 변수상황 등에 대비하는 집중력을 키워야 한다.

특히 모르는 문제는 과감히 넘기고 쉬운 문제부터 풀어나감으로써 확보

된 시간으로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도 반복해 연습해봐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금 이 시기에는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실수를 최대한 줄이는 연습을 해야 한다”면서 “복습과 오답정리 등을 하면서 수능 일까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1월 14일로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치러지며, 시험 성적표는 12월 4일 통지된다.

/장은성기자



전주교육대가 추진하는 무형유산 전수교육 교수 역량강화 1차과정에 시작됐다.

전주교대, 무형유산 전수교육 교수 역량강화 실시

전주교육대학교 육성사업에서 추진하는 2019 무형유산 전수교육 교수 역량강화 1차과정이 시작됐다.

교수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지식 습득과 체계적인 교수 설계로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이번 과정에는 총 20명의 전승자가 참여해 18일까지 5일간 교육받으며, 스스로의 교수법을 점검하고 학습한다.

전주교육대학교는 국립대학 육성사업 중점 추진과제로 지자체 연계 교육·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국립무형유산원과 무형유산 전수교육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늘 교육과정에 참여한 이수자 중 1명은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대상에게 무형유산교육을 하는 많은 이수자들이 체계적인 교수법을 배우는 기회가 적어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초등 교원을 양성하는 전주교육대학교의

교수님들의 교육강습법을 체계적으로 교육받아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해 수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주교육대학교 육성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최병연 기획처장은 “이번 국립대학육성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전주교육대학교가 지역사회 기여나 지역기관연계 등 다양한 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교육과정은 이수자들에게 매우 필요한 교육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전주교육대학교와 국립무형유산원의 지속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교육대학교와 국립무형유산원은 지난 8월 무형유산 전수교육 교수역량 강화과정 공동운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한 바 있으며, 이외에도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비전엑스포 개최

전주비전대학교는(총장 홍순직) 오늘부터 17일까지 본교 체육관에서 2019년 비전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엑스포는 2020년 2월에 졸업예정자들이 제작한 졸업작품 전시와 이동인형극, 태권도 공연, 뷰티건강쇼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린다.

특히 이번 졸업작품전의 목적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발굴한 참신한 아이디어와 재학기간중 배우고 익힌 전공 기술, 산업현장의 실무기술을 결합한 작품을 개발 전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의력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졸업작품전의 테마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ICT 및 AI기반의 기술과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창의융합기술이다.

이번 졸업작품전에는 130여개의 작품이 전시됐으며 이중 벤처중소기업부 장관과 특허청장, 새만금개발청장 등 20여개 주요기관장 상을 수상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한 작품은 전기과 홍대오 외 4명의 학생이 공동으로(지도교수:김창현) 개발한 ‘소화기 위치 알리 및 화재대피 경로 안내 시스템’이며, 특허청장 상에는 신재생에너지과 설민규 외 9명의 학생이 공동으로(지도교수:김지홍, 박효식) 개발한 ‘블루투스를 이용한 스마트 도어록’이다.

새만금청장상에는 컴퓨터정보과 윤채림 외 2명의 학생이 공동으로(지도교수:박민식) 개발한 ‘소리에 반응하는 음악분수’다.

이번 졸업 작품 전시와 주요기관장 상 수상은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도 대기업을 비롯한 우수한 중견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자부심과 경쟁력을 갖춘 건강한 실무형 기술인재들이 사회 첫발을 내딛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장은성 기자



15일 전남대학교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호남·제주권 국공립대학·병원 국정감사가 열렸다.

전북대, 국정감사서 교수 비위 행위 '도마위'

15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2019년 국회 교육위원회 호남·제주권 국공립대학·병원 국정감사에서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교수 비리 문제 등에 도마위에 올랐다.

전북대는 제자 갑질, 외국인 여교수 성추행, 무용대회 채점표 조작, 음주운전 사고, 논문 바꿔치기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전북대 교수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날선 질의를 했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북대에 왜 이렇게 일이 많냐”면서 “여성을 대상으로 막말, 비하한 교수 이름이 뭐냐”고 캐물었다.

서 의원은 또 자녀에게 예이 플러스(A+)를 몰아주고, 수억대 연구비 횡령 의혹을 받는 다른 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도 따졌다.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국 163개 대학에서 638명이 부모 수업을 듣는데 전북대는 21명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한다”며 “5개 대학, 13건 부정

사례 가운데 9건이 전북대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자녀에게 학점을 몰아준 교수와 관련해서도 “아들은 교수 아버지 수업을 7개 들어서 모두 A+, 딸은 8개 중 7개에서 A+를 받았다”며 “연구비까지 부당하게 집행한 의혹이 있으니 그야말로 비리 백화점”이라고 꼬집었다.

김동원 총장은 “해당 사건이 사회에 큰 경종을 울리고 있다”면서 “적절히 징계 수위를 높이고 앞으로는 자체 감사를 철저히 해서 거점대학의 위상에 맞게끔 도약하겠다”고 답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진로·창업교육 현장 방문 컨설팅 추진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진로교육 중점학교 및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해 현장방문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11월 1일까지 도내 초·중·고 진로교육 중점학교 12개교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4곳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며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다지고 진로교육과 연계하여 다양한 진로직

업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도내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는 초 4교·중 3교·고 3교 등 10개교에서 운영하며 기업가정신기반 창업체험교육은 일반고 2개교에서 운영한다.

진로교육 중점학교는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1년간 운영된다.

현장방문 컨설팅은 14일 전주상업정

보고와 효문여중을 시작으로 15일 신성초, 서신초, 17일 정주고, 세인고, 완주진로체험지원센터, 18일 군산구암초, 군산진로체험지원센터, 21일 남원용성중, 남원여고, 남원진로체험지원센터, 28일 고창중, 11월 1일 이리팔봉초, 원광여고, 익산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이뤄진다.

주요 내용은 ▲진로중점학교 및 진로체험지원센터 추진 현황 ▲운영현황 ▲교육과정 ▲예산운영 관련 컨설팅 ▲우수사례 공유 ▲질의·응답으로 이어진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창업기업 국내외 판로개척 돕는다

전주대학교는 지역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도내 예비창업자와 7년 미만 창업자를 대상으로 ‘판로개척 주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9년 판로개척 주간 세미나’는 오늘부터 21일까지 4일 동안 전자상거래, 유튜브, 소셜매, TV 홈쇼핑, 전시회 등에 입점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판로개척 비법 공개뿐만 아니라 유통업 입점을 희망하는 기업에게는 입점 교육비, 제품개선비, 입점비 등을, 전시회 입점을 희망하는 기업에게는 마케팅 비용 및 제품 현지화 비용을 지원하는 등 지역 창업자 및 기업에게 현실적인 판로개척 솔루션을 제공한다.

전주대 창업지원단장 주영아 교수는 “전라북도(예비)창업 기업에게 국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창업가와 기업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미나는 오늘 아미존 입점 전략, 17일 롯데백화점 입점 전략, 18일 전시회 입점 전략, 21일 NS홈쇼핑 입점 전략 순으로 매회 오후 2시 대학본관 124호 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장은성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